

## 4. 풍성한 삶의 원리: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

본문: 여호수아 14: 6-12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밭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오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오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 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충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 승리하는 비전은 - 변치 않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전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졌던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저사람 변했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확인하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을 시점에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의 비전을 확신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확인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일인데,

비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비전을 소유할 자격을 가지냐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인하고 고백하려고 그들을 보내셨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보고도, 12명 중에 10명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소유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비전을 확증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40년 전의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니, 어떤 이들에게는 희미해진 옛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은 그 때의 일이 여전히 현실로 간직하고 있었던 일 이죠. 변치 않고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성공적인 삶이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삶을 위한 또 하나의 비결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는 주인공은 갈렙 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당시의 12정탐꾼 중 하나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유일한 인물로,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가 가졌던 비전을 신앙의 열매로 맺게 되는 삶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는 팔십오세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한참 때인 - 모세가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던 때- 40년 전과 85세인 지금과 변화 없이 팔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밭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오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오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 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충  
일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듣기 좋은 칭찬은 '젊다'는 것입니다. 젊어 보인다. 젊게 산다. . .  
그런데 이런 말들이 단순히 외모와 나이에 관한 것은 아닌 것이죠.  
청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언젠가 나는 청년들에게 내 명함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미술을 하는 친구가 만들어 준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색이 무엇인지를 묻고는 새롭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감각에 맞게 말이죠.

그런데 그 명함을 받던 청년 중 하나가 ‘어 ! 명함만 신세대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분 좋은 말이기도 하고, 그 때나 지금이나 저는 늘 신세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해, 청년부에서 ‘작은 자의 외침’이라는 문화 행사를 할 때였는데, 사회를 보던 청년이 네  
순서가 되어 나가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더군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거기 까지 좋았는데, 그 이유가 동년배 보다 10년이나 머리가 벗어  
졌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말 한마디에도 점점 민감  
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갈렙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에게도 주위에 아주 나쁜? 청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마 그의 나이만 보고 늙었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강하게 항변합니다. “지금 나는 나의 전성기 때와 변함없이 젊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85세의 나이에 그가 꿈꾸어 오던 일을 새롭게 시  
작하여 뜻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갈렙은 시각적 단계에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는 자기 부족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을 침투하게 되었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이야기는 민수기 13: 26-33까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똑 같은 사실을 보면서 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  
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고 하며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유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비전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들이 성공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만나교회에서 기획목사로서 일을 할 때, 저를 돕는 전도사와 간사로 정삼희목사, 그리  
고 장승권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새벽에 퇴근을 하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주주 들  
렸던 곳이 ‘감자탕’집이었습니다.

당시에 감자탕을 앞에 놓고 끓기를 기다리며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삼희 전도사’가 뜬금없이 묻더군요.

"목사님 이 뼈가 몇 번 뻗지 아십니까?" 수의학을 전공한 정삼희 목사의 눈에는 꿩고 있는 감자탕 속 뼈다귀들이 고기가 붙어 있는 뼈가 아니라, 해부학에서 펼쳐진 골격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제 관심은 어느 뼈에 살이 많이 붙었는지 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똑 같은 시간에 똑 같은 것을 놓고 보고 있지만, 가슴에 담아 두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보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간직하고 있었던 생각과 축적된 지식에 의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갈렘은 자신이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서 커다란 아낙자손을 보고 겁을 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았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소유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을 품고 40년을 살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의적이고, 두려움에 차 떨었기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갈렘이 보았던 그 비전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그 비전이 80세가 넘은 갈렘으로 하여금 자신에 넘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85세에 갈렘은 싸울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위에서 인생의 문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누르는 것은 진정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는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성실한 비전!

우리의 가슴속에 품는 생각들이 우리를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승리를 얻으려면 항상 먼저 비전을 품어야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약 4:2)"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봐야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싱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쩌면 변치 않는 것과 성실함은 동일한 단어 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성실함이 변치 않음을 붙잡아 주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렘은 자신이 본 것을 가슴에 묻어 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 (수 14:7)"**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청년부 회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의 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으며

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꿈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를 즐겨합니다.

김형석 교수가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에 보면, 그 분의 친구였던 안병욱 교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병욱 교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성실’에 두고 살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마귀도 유혹하지 못한다. 성실이 깨져서 유혹할 틈이 생겨나는 것이다. 또 성실한 사람은 마귀가 유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버리시지 못한다.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을 버리신다면 남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의외로 ‘성실’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하여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서야 한다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번역비교] [유사말씀]

시편 119:30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번역비교] [유사말씀]

이사야 11: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번역비교] [유사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도 그 분의 성실하심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변치않고 붙잡아주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성실’에 근거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기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실’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몸의 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girdle, belt, sa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말은 ‘waist’ 즉 허리라는 말이죠.

몸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I was forty years old when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sent me from Kadesh Barnea to explore the land. And I brought him back a report according to my convictions,*

NIV 성경으로 보니까 ‘성실’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보고했던 그 ‘convictions’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

다.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던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김형석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용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데 다시 호수가 조용해지면 하늘의 달과 별 그림자가 다 내려온다. 즉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동안은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경건하고 조용할 때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지난주간에는 한 교인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래요, 라는 말을 들으니깐 괜히 기뻐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엔돌핀이 푹푹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들이 다음에 품고 있는 비전의 이야기는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언어, 꿈의 언어들을 서로 고백하십시오” -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도자론에 대한 책을 읽다가 나에게 가장 감명을 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지도자가 꿈을 가지지 못한 것이요, 꿈을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이다”

혹, 이 꿈이 갈렙이 4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 이 꿈은 회의적이고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루어져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볼까요?

나는 우리 청년부들이 이 교회에 꼭 차는 꿈을 꿈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좋아서 꼭 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위하여 모인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가 “흠어지기 위하여 모이는”교회에 대한 꿈을 꿈니다. 가득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흠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꿈 말입니다.

청년들이 100명에서 200명이 모이던 시절, 청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해외 단기선교를 떠났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1년에 4차례씩 영월지방에 가서 지역을 바꾸어 농자고 농활과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주셨던 꿈이,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청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흠어지는 교회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 때일을 생각해 봅니다.

당시 담임목사의 아들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처음으로 맡았던 부서인 청년부에서

‘결과’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결과를 ‘숫자’로 평가하니, 청년부 숫자를 늘려야 좋은 결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청년부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오늘 만나교회를 보면서 그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 역시 만나교회의 성공이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갈렙의 말을 빌리면,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때나 지금이나 같으니. . .’

제가 청년부를 막 바꾸어 나갈 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부 회장과 부회장을 하던 임원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와 청년부가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 때마다 설교와 같은 비중으로 ‘만청 vision sharing’이라는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청년들이 동일하게 비전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놓아야 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1998년 당시에 만나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교회 기획을 담당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만나교회가 송파에 있던 시절에는. . .”이라는 말이죠.

그 때 마다 저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나교회는 이제 송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당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에 진군하기 위해 여리고와의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40년이나 받지 않았던 할례가 필요한 시점에 온 것이죠.

그리고 그 곳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만나의 은혜가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불쌍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에서부터 분리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며 들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인생에 끝까지 풍성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늘 새로운 비전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비전에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되는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합니다.

## **자 우리가 비전을 말하기 시작할 때 각오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공적으로 실패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꿈은 결국 허황된 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동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자신감을 더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비전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이 되어야합니다.

우리는 **영성훈련**이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훈련은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죽어져야 시작되는 훈련입니다.

우리교회에는 중국정부의 고문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한분계십니다. 그분은 중국의 의과대학에 명예교수로 있는 분인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타민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비타민을 잘 섭취하고, 계속해서 복용을 하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좀 비타민을 먹어야겠다고 했더니,

젊은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몸속에 충분한 영양이 있어서 기능을 하기때문에 섭취해도 큰 효용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설교준비를 하다가 정말 굉장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비전은 우리의 생각이 아직 충만해 있는 동안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 이기심이 없어지지 않으면, 비전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섭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위하여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자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올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비전을 누구와 나누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훈련을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바뀌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잠언 29장 18절

18)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이 없다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지시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무리 꿈을 이야기 하고, 장래의 계획을 이야기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언어들만 '야망'입니다.

그래서 꿈이 많은 사람이 교만해 질 수 있고, 그 큰 꿈으로 인해 죄악에 쉽게 빠져 들 수 있는 것이죠.

J. C. 라일은,

“지옥에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두 눈을 뻘뻘 뜨고 걸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하나는 작은 죄들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길은 너무 흔하다.”

제리 토마스의 [일상 영성]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리복회사는 프로 농구선수인 앨런 아이버슨의 품행을 바르게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험리 '큐' 개스킨즈에게 해마다 1억원 가까운 돈을 지급한다. 운동화 제조사들은 전속계약 운동선수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갈수록 더 많은 멘토 인력을 채용하여 선수별로 할당시키고 있는데, 개스킨즈도 그 중에 하나다.

리복회사는 운동선수 하나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역대급 수입을 지급하는 것일까?

그들은 자신의 투자 상품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리복회사는 400억 원에 아이버슨과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따라서 그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1억원을 쓰는 것은 비교적 소액의

보험금에 해당된다.

지난 해 한국의 한 연예인이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습니다.

김태우라는 god 멤버 중에 하나인데, 모델로 활동한 비만관리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자기를 관리해서 이미지를 지켰어야 하는데, CF를 찍고 난 후에 10kg 이나 살이찌서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속사가 김태우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태우 소속사와 1년 기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초반 113kg였던 김태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듬해 4월 목표 체중 85kg까지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A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홍보에 나섰고, 김태우 역시 여러 방송에 나와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체중감량 이후 관리 프로그램에 소홀하면서 녀 달 만에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한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는데,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다시 체중이 증가한 김태우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 요청 및 상담 취소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소속사가 져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절반으로 책정했다.